

생활긴장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학교환경에 대한 위계적 선형분석을 중심으로

이순래** · 이경상***

국 | 문 | 요 | 약

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생활긴장을 경험한다. 친구가 배신하고, 이성친구와 이별하고, 부모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는 등 주위사람들과 원치 않는 관계에 빠져든다. 긴장의 경험은 외부자극과의 접촉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좌절, 분노, 복수심,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한다. 본 논문은 일상생활의 긴장과 소년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으로부터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제1가설은 생활긴장을 많이 겪을수록 비행이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며, 제2가설은 학교환경에 따라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생활긴장은 목표실패, 부모긴장, 친구긴장, 학교긴장, 외모긴장, 분노감정의 6개 변수로 측정했고, 비행은 지위비행을 포함하여 14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학교환경은 학교유형과 학교소재지로 측정했으며 분석자료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했다.

상관관계분석에서 6가지 생활긴장 모두는 비행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긴장의 상관계수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분노감정이 .24이었다. 부모긴장은 .17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관계수는 친구긴장으로 .07이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도 생활긴장은 소년비행의 중요한 인과요인이었다. 부모긴장, 학교긴장, 외모긴장, 분노감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러한 긴장을 많이 겪을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목표실패와 친구긴장은 가설과 일치하지 않아 제1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에서 학교환경은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판별되었다. 학교유형과 목표실패, 학교유형과 친구긴, 학교유형과 학교긴장, 학교소재지와 학교긴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그러나 학교환경의 영향은 그 외의 다른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2도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해 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당국은 생활긴장의 계기로 작용하는 외부자극을 감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객관적 긴장을 불공정하고 심각한 것으로

* 본 연구는 2008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했으며, 이 연구는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임.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식하는 경향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학교기관들은 대학진학이라는 단일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소년들이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제어 : 소년비행, 생활긴장, 일반긴장이론, 미시환경, 비행유발 생활긴장

I. 서론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년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유형의 긴장을 경험한다. 주위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이성친구와 이별하고, 부모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는 등 주위사람들과 원치 않는 관계에 빠져든다. 긴장의 경험은 단순히 외부 자극과의 접촉에 그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위사람들이 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좌절, 분노, 복수심,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 물론 긴장을 겪는다고 모든 소년이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각한 긴장에 시달리고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인 소년은 만족스런 생활을 하는 소년에 비해 비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3년 긴 병에 불효난다”라는 속담은 긴장이 반사회적 행위를 촉발하리라는 상식적 예측을 함축적으로 대변한다.

“일상생활의 긴장과 소년비행은 어떤 관계일까?” 상식적이고 기초적 질문이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을 찾기 힘들다. 생활긴장¹⁾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자아통제이론, 일상활동이론 등(Hirschi, 1969; Akers, 1985; Gottfredson & Hirschi, 1990; Cohen & Felson, 1979)에 집착하여 생활긴장과 같은 외부자극을 간과했다. 소년을 포함해 인간행위자는 주위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그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1) 범죄학에서 긴장(strain)은 흔히 머튼의 아노미이론에서 다룬 구조적 긴장(Merton, 1938)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긴장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주위사람들과의 부정적 관계(negative relationship)를 의미하므로 개념구분을 위해 생활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Rubington & Weinberg, 1987: 4). 생활긴장을 간과함으로써 그간 소년비행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편협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예컨대 사회유대이론은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조한다. 그러나 부모나 교사와의 애착이 미흡하더라도 다른 일상 생활이 원만한 소년이 단지 애착의 부족 때문에 사람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점에서 외부자극으로 작용하는 생활긴장들과 해석과정에 관한 연구는 기존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년비행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절실한 과제이다.

비행연구의 초기단계에서는 긴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1930년대에 이미 머튼(Merton)은 긴장과 일탈행동에 관한 아노미이론을 발표했다(Merton, 1938). 머튼은 사회에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이 있으며 두 구조의 괴리로 인해 긴장이 발생하며, 긴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같은 일탈행위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결과는 대부분 머튼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³⁾(이순래 등, 2010: 135-146).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Agnew, 1992: 50-56). 소년들은 날마다의 당면과제에 집중하는데 장기간의 인내가 요구되는 문화적 목표를 거론하는 것은 소년비행의 경우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다. 긴장이론은 비행연구의 초기단계에 대두했지만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등으로 이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근에 긴장이론은 부흥기를 맞고 있다(Bernard 등, 2010). 긴장이론의 부활을 주도하는 학자는 애그뉴(Agnew)이다. 그가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발표한 이후로⁴⁾ 많은 연구들이 일상생활의 긴장을 중심으로 소년비행현상을 분석

2) 외부자극의 간과는 의도적일 수 있다. 현대 사법제도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개인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한다. 기존 비행이론들은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 개인에 문제성향이 있다고 가정하므로 현대 사법제도의 운용방향과 일치한다. 물론 비행이론별로 문제성향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구체적 내용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문제성향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같다. 긴장이론은 이들과 다르다. 비행의 원인이 소년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있다는 견해이다. 극심한 외부자극이 있으면 개인의 문제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긴장이론에 따르면 개인에 책임을 묻고 형벌을 부과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현대 사법제도의 운용방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연구들이 외부자극이나 긴장이론을 의도적으로 간과했을 수 있다.

3) 고전 긴장이론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관해서는 이순래 등(2010) 참조.

4) 애그뉴는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이론적으로 생활긴장을 설명한 대표적 논문으로는 1992년에 Criminology에 발표한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하고 있다(Agnew & Brezina, 1997; Piquero & Sealock, 2000; Broidy, 2001; Jang & Johnson, 2003; Baron, 2004; Moon & Morash, 2004; Moon & et al., 2007; Moon & et al., 2009). 애그뉴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이 긴장에 주목한 것은 높이 평가했지만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에 국한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Agnew, 1992; 1997; 2001; 2009).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자극의 손실, 부정자극의 경험 등의 계기로 긴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긴장이 비행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유발긴장은 긴장의 불공정성, 긴장의 심각성, 낮은 사회통제와의 연계성, 반사회적 노출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이라고 특징했다. 비행유발긴장의 경우도 대안목표의 보유, 대응능력, 사회적 지원, 비행억제기제 등과 같은 개인역량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시환경의 영향을 강조했다. 소년이 속한 미시환경의 하위문화 목표, 긴장에 대한 감수성, 인지재구성 가능성 등이 비행유발긴장이나 개인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애그뉴는 이처럼 생활긴장의 계기, 비행유발긴장, 개인역량, 미시환경 등을 중심으로 비행이 저질러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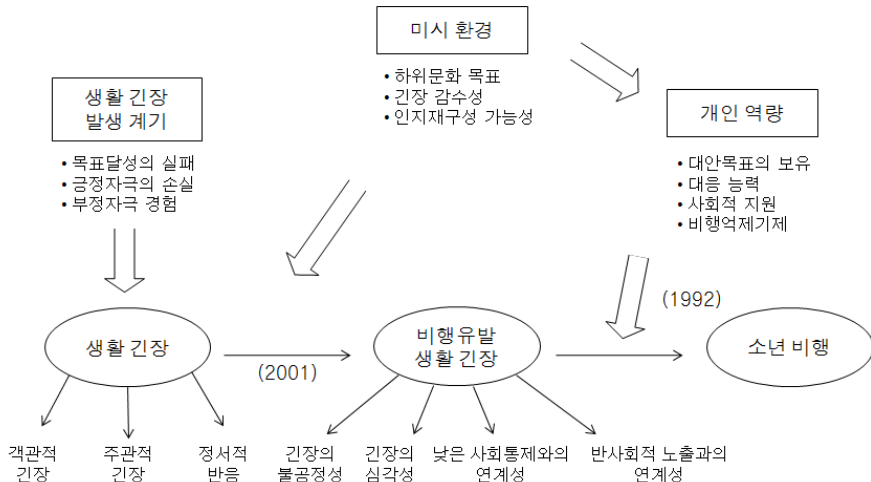
본 논문의 목적은 일상생활의 긴장과 소년비행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을 개관하고,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후 학교의 미시환경이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of crime and delinquency”와 2001년에 Journal of Crime and Delinquency에 발표한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를 들 수 있다. 1992년의 논문은 일반긴장이론의 개요와 개인역량에 따른 조건화 효과를 기술했고, 2001년의 논문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를 유발하는 생활긴장의 유형을 주로 검토했다.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일반긴장이론은 1992년과 2001년에 발표한 논문을 종합한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일반긴장이론의 개요

애그뉴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목표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목표가 있더라도 소년들은 아직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내면화하지 않아 이로 인한 긴장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에 가족의 사망, 이별, 부모의 학대, 친구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이하 GST)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서술했다(Agnew, 1992; 2001). GST의 핵심명제는 생활긴장을 겪으면 소년은 분노와 좌절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고, 부정적 감정은 이를 해소하려는 교정적 행위(corrective action)를 유발하며 이 과정에서 비행이나 범죄가 저질러진다는 것이다(Agnew, 1992).



【그림 1】 일반긴장이론의 소년비행 설명체계

그림 1은 최근까지 애그뉴가 보완을 거듭한 GST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에서 생활긴장은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자극의 손실, 부정자극의 경험에 의해 유발되며 그것은 객관적 긴장, 주관적 긴장, 정서적 반응으로 소년에게 나타난다. 1992년의 논문⁵⁾에 대해 켄슨(Jensen, 1995)은 생활긴장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2001년의 논문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모든 생활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장의 불공정성, 긴장의 심각성, 낮은 사회통제와의 연계성, 반사회적 노출과의 연계성이 강한 유형만이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특정했다. 이러한 생활긴장을 겪을 때에 소년들은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개인역량은 생활긴장의 영향을 완충하는 조건화기제이다. 부정적 감정을 갖더라도 대안목표의 보유, 대응능력, 사회적 지원, 비행억제기제 등에 따라 생활긴장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미시환경은 소년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시설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미시환경에서의 하위문화 목표, 긴장에 대한 감수성, 인지재구성 가능성에 따라 비행유발 생활긴장과 개인역량이 달리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에서는 그림 1에 기술한 주요개념들을 상세히 검토한다.

2. 생활긴장의 정의

“생활긴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애그뉴는 일상생활에서 소년이 기대하는 대로 주위사람들이 대해주지 않는 관계라고 정의했다(Agnew, 1992: 48). 생활긴장을 겪게 되는 계기로는 크게 세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소년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이다(목표달성의 실패). 열망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결과를 기대했는데 실제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에 생활긴장을 겪는다는 것이다⁵⁾. 두 번째는 소중한 여기는 대상이 빼앗기는 경우이다(긍정자극의 손실). 이성친구와 이별을 한다거나, 새로운 학교

5) 목표달성의 실패는 고전 긴장이론에서도 고려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GST는 열망수준과 기대수준의 격차보다는 실제 성취여부를 강조하며 특히 공정한 결과(fair outcome)와 실제 결과(actual outcome)와의 괴리를 생활긴장이 발생하는 중요계기로 포함시켰다. 예컨대 시험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해서 자신의 시험성적이 낮게 나왔을 때에 공정한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괴리로 인해 생활긴장을 겪는다는 것이다.

로 전학을 간다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사건 등은 소년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빼앗기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싫어하는 대상을 접하게 되는 경우이다(부정자극의 경험). 아동학대나 방임, 범죄피해, 신체적 체벌, 친구관계의 악화 등은 소년이 싫어하는 대상이며 이들을 접할 때에 생활긴장을 겪는다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에서 생활긴장은 다소 혼란스럽게 해석되었다(Agnew, 2001: 320). 일부 연구에서는 구체적 사건이나 상태로 해석하고, 다른 일부는 조사대상자의 판단이나 감정으로 해석하는 등 해석방법이 서로 달랐다. 이에 대해 애그뉴는 객관적 긴장, 주관적 긴장, 정서적 반응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객관적 긴장은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사회성원이 싫어하는 사건이나 상태이다. 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추위와 빈곤에 시달리는 것은 대부분이 싫어하므로 객관적 긴장에 해당한다. 주관적 긴장은 개인의 입장에서 싫어하는 사건이나 상태이다. 유사한 긴장이라도 사람마다 달리 인식할 수 있다. 학교전학의 경우에 이전 학교에 정이 들었던 소년은 싫어하는 사건이지만, 괴롭힘을 당한 소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은 긴장에 대한 소년의 감정적 평가 혹은 반응이다. 싫어하는 대상을 접할 때에 정서적 반응은 소년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소년은 화를 내지만 다른 소년은 우울할 수 있고, 또 다른 소년은 분노에 휩싸일 수 있다. 결국 객관적 긴장을 접하거나, 주관적 긴장이 있거나, 정서적 반응이 부정적이면 모두 생활긴장을 겪는 것이다⁶⁾.

3. 비행유발 생활긴장

발생계기를 세분화했지만 생활긴장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했다. 젠슨(1995: 12)은 이를 지적하며 GST는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이 없다고 비판했다. GST와 반대되는 연구결과가 있어도 긍정자극이나 부정자극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6) 객관적 긴장, 주관적 긴장, 정서적 반응으로 분류함으로써 생활긴장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그러나 세 차원은 상호독립적이지 않다. 또한 객관적 긴장이 주관적 긴장이나 정서적 반응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매개요인이 개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GST에서는 세 차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GST가 소년비행의 대표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세 차원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항상 변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애그뉴(2001)는 소년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긴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Agnew, 2001: 326-338). 첫째, 불공정한(injustice) 긴장이다. 잘못은 조금 했는데 과한 처벌을 받는 경우나 억울하게 꾸중을 듣는 경우 등이다. 불공정성은 실존적 믿음 즉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정의관에 위배되므로 소년에게 분노의 감정을 초래한다. 분노한 소년은 비행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왜냐하면 분노는 정상적 사고활동에 장애를 가져오고, 보복욕구나 공격행동을 유발하고, 죄책감을 줄이기 때문이다. 둘째, 심각한 긴장이다. 생활긴장이 심각하면 인지적이나 행위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애그뉴는 빈도, 기간, 최근성, 핵심성을 거론했다. 빈도의 경우는 자주 겪을수록, 기간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겪었을수록, 과거와 최근의 생활긴장 중에서는 최근의 것일수록 심각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핵심성은 소년이 꼭 지키려는 정체성, 목표, 가치, 욕구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협하는 생활긴장을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셋째, 낮은 사회통제와의 연계성이다. 생활긴장 중에는 강한 사회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감시가 심하거나 높은 성적을 받고자 할 때의 생활긴장은 강한 사회통제와 연관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주위의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고 비행에 따른 손실이 많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낮은 사회통제와 연계될 때는 그렇지 않다. 부모의 가혹한 훈육, 냉대, 퇴학처분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이 없고 비행에 따른 손실도 크지 않으므로 쉽게 비행에 빠져들 수 있다. 넷째, 반사회적 노출과의 연계성이다. 반사회적 대처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연계되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람 중에는 비행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생활긴장을 겪으면 반사회적 대처를 하도록 강요받고 유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⁷⁾.

7) 이후 애그뉴는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사례들은 목표달성의 실패, 부모의 거부(rejection), 부모의 가혹하고 미숙한 훈육, 아동학대와 방임, 학교생활의 부적응, 열악한 노동조건, 노숙생활, 친구의 학대, 범죄피해, 출생에 따른 차별대우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그가 유형화했던 긴장의 불공정성, 긴장의 심각성, 낮은 사회통제와의 연계성, 반사회적 노출과의 연계성 등이 높은 생활긴장들이다(Agnew, 2001: 343-347).

4. 개인역량

생활긴장이 특히 불공정성이 심하면 소년들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애그뉴는 개인역량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Agnew, 1992: 71). 개인역량으로 강조한 것은 대안목표의 보유, 대응능력, 사회적 지원, 비행억제기제이다. 먼저 대안목표의 보유이다. 한 가지 목표에만 집착하다가 성취하지 못하면 심한 좌절을 겪는다. 이때 대안목표가 있으면 인지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컨대 ‘미래사회에는 대안목표가 더 중요할 것이다’와 같이 목표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좌절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응능력이다. 대응능력은 지능,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효율감, 자기존중감 등 다양한 개인적 능력을 포함한다. 대응능력이 강하면 생활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다면 생활긴장에 직면해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지원이다. 사회적 지원은 정보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적 지원으로 생활긴장의 실상과 대처방안을 알 수 있다면 그만큼 쉽게 극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구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이 있으면 주위의 도움으로 원만히 극복할 것이다. 네 번째는 비행억제기제이다. 비행을 억제하는 데에는 여러 기제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사회적 유대는 충동성의 발현을 막아주는 억제기제이다. 책임감과 양심도 비행을 억제한다(Braithwaite, 1989). 개인역량의 측면에서 사회적 유대가 강하고 책임감이 있고 양심적인 소년은 당연히 반사회적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을 것이다.

5. 미시환경

미시환경의 영향을 실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GST에서 미시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GST는 객관적 긴장뿐 아니라 그것의 해석결과인 주관적 긴장과 정서적 반응을 비행의 원인으로 고려한다. 가정이나 학교 등의 미시환경은 객관적 긴장, 주관적 긴장, 정서적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애그뉴는 미시환경의

영향을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했다(Agnew, 1992: 72). 첫째, 하위문화 목표이다. 학교마다 교훈이 있고 가정의 가훈이 다르듯이 미시환경에는 나름대로 강조하는 하위문화 목표가 있다. 미시환경의 목표를 학습하며 소년들은 본인의 성취목표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목표실패의 소년에게 성취목표는 생활긴장을 초래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대안목표를 제시하는가도 중요한 사항이다. 미시환경에 따라 단일목표만 강조하고 대안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미시환경의 소년들은 만일 단일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생활긴장을 극복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긴장 감수성이다. 미시환경은 특정한 긴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 체육학교에서 2KM의 달리기는 긴장의 계기가 아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 2KM의 달리기는 대부분 원하지 않는 일이다. 미시환경에 따라 긴장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시환경은 생활긴장의 심각성에 대한 감수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시환경은 자기 나름대로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학교 체벌과 두발단속이 대표적 사례이다. 학부모들은 심각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부모들과 다른 판단기준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심각한 긴장으로 인식한다. 외국어학교, 일반학교, 실업계학교에서 서로 달리 인식하는 것도 미시환경이 학생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예증한다. 셋째, 인지재구성 가능성이다. 미시환경은 객관적 긴장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비행친구집단에서는 밀접한 상호작용으로 서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개인 신상정보뿐 아니라 누가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공연하게 즉시 공개된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긴장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6. 연구가설

GST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대체로 이론과 일치했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차별대우를 받거나,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친구와 갈등을 겪거나, 기타의 다른 불행한 사건을 겪은 소년일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었다(김준호 · 이동원, 1996; Agnew & Brezina, 1997; Piquero & Sealock, 2000; Broidy,

2001; Jang & Johnson, 2003; Baron, 2004; Moon & Morash, 2004; Moon & et al., 2007; Moon & et al., 2009). 특히 문과 동료들은(Moon et al., 2007; 2009) 생활긴장에 의한 분노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활긴장을 많이 겪고 분노감정이 강한 소년일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GST의 경험적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인과과정이 다양하고 또한 개인역량과 미시환경 모두를 포함하는 다층적 구조이므로 1회의 연구를 통해 GST를 전부 검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수준의 분석에 치중했고 미시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GST를 이론적 토대로 하여 학교 미시환경이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생활긴장을 많이 겪을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를 것이다.

가설 2. 학교환경에 따라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는 다를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1. 분석자료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3차년도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3년에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수집한 조사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에서 최종표본으로 구성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적조사한 자료이다. 본 논문은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에서 중간에 탈락한 경우와 응답이 부실한 324명을 제외한 2,756명의 자료를 활용한다.

2. 주요 개념의 측정

생활긴장이란 일상생활에서 소년들이 기대하는 대로 주위사람들이 대해주지 않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다(Agnew, 1992: 48). 애그뉴는 생활긴장이란 객관적 긴장, 주관적 긴장,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Agnew, 2001: 320-322). 그리고 목표달성의 실패, 부모의 거부(rejection), 부모의 가혹하고 미숙한 훈육, 아동 학대와 방임, 학교생활의 부적응, 열악한 노동조건, 노숙생활, 친구의 학대, 범죄피해, 출생에 따른 차별대우 등을 비행유발의 가능성이 높은 생활긴장으로 분류했다. 애그뉴의 주장과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여⁸⁾ 본 논문에서는 목표실패, 부모긴장, 친구긴장, 학교긴장, 외모긴장, 분노감정으로 생활긴장을 측정한다. 목표실패는 “귀하가 장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다니는 학교는 진학에 유리하지 못하다”, 현재 다니는 학교는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의 3개 문항으로 반영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긴장은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4개 문항으로 반영하였고 ‘그런적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친구긴장은 “학교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4개 문항으로 반영하였고 ‘그런적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교긴장은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비행으로 학교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의 4개 문항으로 반영하였고 ‘그런적

8) 우리나라에서 소년의 대다수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므로 출생인종에 따른 차별대우, 노숙생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생활긴장을 겪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변수의 명료화를 위해 부모의 거부, 부모의 가혹하고 미숙한 훈육, 아동학대 등은 부모긴장으로 명명하였고, 학교부적응은 학교긴장으로, 친구학대는 친구긴장으로 지칭하였다. 외모긴장은 출생에 따른 차별대우를 반영하기 위해 포함하였고 분노감정은 정서적 반응을 반영한다.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외모긴장은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3개 문항으로 반영하고 '그런적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노감정은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의 4개 문항으로 반영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미시환경은 GST에서 다른 인과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미시환경은 객관적 긴장이 발생하는 규모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하위문화 목표, 긴장감 수성, 인지재구성 가능성을 통해 구성원들의 주관적 긴장, 감정적 반응, 개인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미시환경들 중에서 소년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학교에서 소년들은 생활긴장의 불공정성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다양한 기제들을 학습한다. 본 논문은 학교환경을 간접방식(proximate measure)으로 측정한다⁹⁾. 학교환경의 구체적 속성을 측정하는 대신에 학교유형, 학교소재지로 간접 측정한다. 학교유형은 인문계와 실업계의 두가지 범주로 측정하였다. 학교소재지는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나 읍면동의 2가지 범주로 측정하였다.

비행은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뺑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을 경험여부에 따라 '전혀 없다'와 '있다'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통제를 고려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9) 앞서 서술했듯이 GST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미시환경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애그뉴(1999)가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를 했지만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죄발생물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했을 뿐이다. 본 논문 이후로 미시환경의 구체적 속성을 변수화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후속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이란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1년간 모든 소득을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금액을 말합니다(결혼 후 분가한 형제자매 제외)“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사회통제는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의 4개 문항으로 반영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회귀분석이나 분석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선형모형들은 준거변수의 분산을 하위층위와 상위층위의 분산으로 분해하지 못하고 또한 하위층 개체특성의 효과가 상위층위의 집단에 따라 변하는 구조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전민정 · 강상진, 2005: 123). 이에 본 논문은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하여 학교환경이 생활긴장과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Bryk & Raudenbush, 1992; Muller et al., 2001; Schonfeld & Rindskopf, 2007). 기본적인 분석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수준 1 방정식: $Y_{ij} = X_{ij}\beta_j + r_{ij}, r_{ij} \sim N(0, \sigma^2 I)$

수준 2 방정식: $\beta_j = W_j\gamma + u_j, u_j \sim N(0, T)$

여기서 Y_{ij} 는 종속변수이며 X_{ij} 는 수준 1의 독립변수들이고 β_j 는 이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잔차 r_{ij} 는 평균이 0이며 분산이 σ^2 의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한다. 수준 2 방정식은 β_j 와 수준 2의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W_j 는 수준 2의 독립변수들이며 γ 는 이들이 β_j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u_j 는 $W_j\gamma$ 를 가지고 β_j 를 추정할 때의 오차를 의미하며 평균이 0이며 분산들이 T 행렬로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 X_j 는 생활긴장을 측정한 목표실패, 부모

긴장, 친구긴장, 학교긴장, 외모긴장, 분노감정이며 Wj는 학교환경을 측정한 학교 유형과 학교소재지이다¹⁰⁾.

IV. 연구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숫자는 전국 865개 학교에 재학중인 2,756명이다. 남학생이 49.7%(1,369명)이고 여학생이 50.3%(1,387명)로 거의 동등한 비율이다. 개인수준 독립변수들 중에서 목표실패의 평균은 7.15점이다. 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면 가장 낮은 점수가 3점이고 가장 높은 점수가 15점이며, 중앙치는 9점이다¹¹⁾. 평균이 중앙치보다 낮아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의 실패로 겪는 생활긴장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생활긴장 변수들도 평균이 중앙치보다 낮다. 그러나 분노감정의 경우는 평균이 9.48점 표준편차가 2.88점으로 조사대상 소년들이 전체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며 소년별로 감정적 편차가 많은 경향이다. 학교수준 독립변수인 학교유형에서는 69.5%가 인문계에 나머지 30.5%가 실업계에 재학하고, 학교소재지에서는 46.7%가 대도시 학교에 53.1%가 읍면이나 중소도시의 학교에 재학하였다.

비행은 본 논문의 종속변수이다. 14종류의 비행을 1년 동안에 한번도 저지르지 않는 소년이 58.3%이고 나머지 41.7%는 1회 이상의 비행이 있었다. 자료제시의 편의를 위해 표 1에서는 1회 이상으로 요약했지만 실제로는 다양하게 분포했다. 727명이 1회 이상, 240명이 2회 이상, 91명이 3회 이상 등이었으며 16명은 심지어 7회 이상이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월평균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9개 범주로 재분류한 것이다. 평균이 3.93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약 393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사회통제는 평균이 10.4점 표준편차가 3.16점으로 전체적으로 중앙치에 근접하지만 소년별 편차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본 연구는 SAS 통계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위계적모형 분석방법인 PROC MIXED PROCEDURE로 각각의 모수치들을 추정하였다(Singer, 1998; Littell et al., 2006).

11) 그 외 부모긴장, 친구긴장, 학교긴장, 분노감정, 사회통제는 최소값이 4점이고 최대값은 20점 중앙치는 12점이다. 외모긴장은 최소값이 3점이고 최대값은 15점, 중앙치는 9점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구분	변수	평균/빈도		표준편차/퍼센트
개인수준 독립변수	목표실패	7.15		1.83
	부모긴장	6.71		2.58
	친구긴장	7.70		2.51
	학교긴장	6.88		2.53
	외모긴장	7.72		2.48
	분노감정	9.48		2.88
학교수준 독립변수	학교유형	인문계 실업계	1,915 841	69.5% 30.5%
	학교소재지	대도시 읍면/중소도시	1,293 1,463	46.9% 53.1%
통제변수	성별	남자 여자	1,369 1,387	49.7% 50.3%
	사회경제적지위	3.93		1.56
	사회통제	10.4		3.16
종속변수	비행	비행없음 1회이상	1,605 1,151	58.3% 41.7%
조사대상자	2,756			100.0%

가설1은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를 서술한 것이다. 표 2와 표 3은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으로 생활긴장을 많이 겪는 소년들이 과연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가를 검증한 결과이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가설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2 참조). 생활긴장 모두가 비행과 긍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긴장을 많이 겪는 소년일수록($r=0.3437$) 비행을 많이 저질렀으며, 분노감정이 강한 소년일수록($r=0.2404$)¹²⁾ 역시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다. 다른 생활긴장 변수들도 부모긴장이

12) 분노감정과 다른 생활긴장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노감정과 관련해 그간 기질적 특성에 기인하는가(trait-based negative emotion) 아니면 상황에 기인하는가(situation-based negative emotion)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Moon et al., 2009). 본 논문에서 분노감정과 다른 생활긴장과의 상관관계는 0.1441(목표실패), 0.2556(부모긴장), 0.2826(친구긴장), 0.2525(학교긴장), 0.2359(외모긴장) 등이다. 상관관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적 조건에 기인해 소년의 분노감정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알 수 있다.

많을수록($r=0.1655$), 목표실패의 우려로 인한 긴장이 많을수록($r=0.1230$), 외모긴장이 많을수록($r=0.1069$)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다. 그리고 상관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1$) 우리나라 소년 전체에서 이러한 관계가 나타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표 2】 생활긴장과 비행의 상관관계

	목표실패	부모긴장	친구긴장	학교긴장	외모긴장	분노감정	비행
목표실패	1.0000						
부모긴장	0.0953**	1.0000					
친구긴장	0.2128**	0.2607**	1.0000				
학교긴장	0.3885**	0.2653**	0.3409**	1.0000			
외모긴장	0.2219**	0.1884**	0.4497**	0.2344**	1.0000		
분노감정	0.1441**	0.2556**	0.2826**	0.2525**	0.2359**	1.0000	
비행	0.1230**	0.1655**	0.0719**	0.3437**	0.1069**	0.2404**	1.000

주: **는 $P<.01$ 를 의미함.

표 2의 결과만으로 가설1을 검증했다고 할 수 없다. 제3의 변수로 인해 이러한 관계가 나타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생활긴장의 독립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긴장, 학교긴장, 외모긴장, 분노감정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긴장이 1단위 증가할 때에 .0082만큼 더 많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며, 학교긴장이 1단위 증가할 때에 .1297만큼, 외모긴장의 경우는 1단위 증가할 때에 .0219만큼 그리고 분노감정이 1단위 증가할 때에 .0679만큼 더 많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1과 일치하며 GST의 현실적 적합성을 입증한다. 반면에 목표실패, 친구긴장은 그렇지 못하다. 가설1과 일치하지 않는다. 목표실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친구긴장의 경우는 가설1과 반대로 친구긴장이 많을수록¹³⁾ 비행을 자

13) 친구긴장은 다른 생활긴장들과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가 똥똥하다고 놀리거나, 학교에서 함께 사고를 치거나, 친구에게 화풀이를 할 때 등에 긴장관계에 빠지는 경우이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생활긴장들 즉 친구와 긴장관계를 만드는 원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친구긴장의 비행억제효과는 이러한 점에서 외부자극으로 손상받지 않은

제하는 경향이다. 전체적으로 표 3의 결과는 가설1을 완전히 지지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비행에 대한 생활긴장의 회귀분석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검증통계치(T값)
절편	-.9643	.1328	-7.26**
목표실패	-.0053	.0118	-.45
부모긴장	.0230	.0082	2.80**
친구긴장	-.0538	.0093	-5.80**
학교긴장	.1297	.0091	14.20**
외모긴장	.0219	.0092	2.39*
분노감정	.0679	.0073	9.30**
성별	.1488	.0430	3.46**
사회경제적지위	-.0121	.0134	-.90
사회통제	.0237	.0065	3.64**
R-square	0.16(F=58.56**)		
사례수	2,717		

주: **는 P<.01, *는 P<.05을 의미함.

가설2는 미시환경의 영향에 관한 것으로 학교환경이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첫 단계로 우선 학교환경과 소년비행이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소년비행이 학교간 차이와 관계가 없다면¹⁴⁾ 가설2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표 4에서와 같이 소년비행의 전체평균(Υ_{00})은

인간적 연대감 혹은 순수한 우정이 강하면 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에 의한 통계적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Pedhazur, 1982: 232-247). 표 2에서 다른 생활긴장들과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이론적 관계 인지 아니면 통계적 결과물인지에 관한 분석은 차후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4) 이를 Bryk과 Raudenbush(1992: 17)는 $Y_{ij} = \Upsilon_{00} + u_{0j} + r_{ij}$ 로 표현한다. 즉 소년비행(Y_{ij})을 전체평균(Υ_{00})과 학교차이 효과(u_{0j}), 개인차이 효과(r_{ij})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일 학교차이($\beta_{0j} - \Upsilon_{00}$)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량을 갖지 못하면 위의 방정식은 $Y_{ij} = \Upsilon_{00} + r_{ij}$ 와 같은 구조가 되며 일반 회귀분석과 차이가 없게 된다.

.7252로 추정되었다. 학교평균(u_{0j})의 변량은 .0926이고 표준오차는 .03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1$)이다. 소년비행은 학교간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소년비행을 적절히 설명하려면 학교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수준(r_{ij})의 변량은 1.1265이며 표준오차는 .0417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1$)이다. 소년비행은 개인간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표 4】 기초모형(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검증통계치(T값)
학교평균	.7252	.0252	28.72**
임의효과	변량	표준오차	검증통계치(Z값)
학교평균(u_{0j})	0.0926	0.0318	2.91**
개인수준(r_{ij})	1.2565	0.0417	30.13**
-2 Log Likelihood	8550.1		
사례수	2,732		

주: **는 $P<.01$, *는 $P<.05$ 을 의미함.

앞 단계에서 학교환경 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표 5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학교환경 변수가 생활긴장과 소년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표 5를 통해 학교환경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유형과 목표실패, 학교유형과 친구긴장, 학교유형과 학교긴장, 학교소재지와 학교긴장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학교유형이 인문계(1)일 경우에 비행에 미치는 목표실패 효과는 .0556 증가하고, 친구긴장 효과는 .0404 증가하는 경향이다. 반면에 학교긴장 효과는 .0552 감소한다. 학교소재지의 경우도 대도시에 있으면 학교긴장 효과가 .0400 감소하는 경향이다. 특히 학교긴장과 비행과의 관계는 모두 학교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가 실업계(0)이고 중소도시 이하(0)에 소재하면 이런 학교환경은 학교긴장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시환경별로 하위문화 목표, 긴장감수성, 인지재구성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gnew, 1998: 72). 이러한 점에서 인문계 학교에서 목표실패 효과와 친구긴장 효과가 증가한 이유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학생간의 경쟁을 방관하고 대안목표를 제시하는데 소홀했으며, 사회윤리교육으로 불공정한 생활긴장에 대한 감수성이 발전하였고, 학생수가 많아 생활긴장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문계 학교에서 학교긴장 효과가 감소한 까닭은 실업계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시설이나 교사인력이 우수하고 학생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업계와 중소도시 이하의 학교에서 학교긴장 효과가 증가한 이유는 이와 반대로 교육시설, 교사인력, 학생관리가 열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 5】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검증통계치(T값)
절편	-.8020	.2388	-3.36**
학교유형	.1896	.2285	.83
학교소재지	-.1701	.2012	-.85
목표실패	-.0608	.0254	-2.40*
부모긴장	.0424	.0152	2.78**
친구긴장	-.0831	.0181	-4.60**
학교긴장	.1654	.0171	9.68**
외모긴장	.0372	.0178	2.08*
분노감정	.0825	.0147	5.61**
성별	.1520	.0491	3.09**
사회경제적지위	.0005	.0135	.04
사회통제	.0163	.0062	2.63**
학교유형*목표실패	.0556	.0259	2.15*
학교유형*부모긴장	-.0315	.0166	-1.90
학교유형*친구긴장	.0404	.0193	2.09*
학교유형*학교긴장	-.0552	.0190	-2.90**
학교유형*외모긴장	-.0350	.0185	-1.89
학교유형*분노감정	-.0232	.0156	-1.48

고정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검증통계치(T값)
학교소재지*목표실패	.0421	.0224	1.88
학교소재지*부모긴장	-.0084	.0158	-.53
학교소재지*친구긴장	.0216	.0178	1.22
학교소재지*학교긴장	-.0400	.0185	-2.16*
학교소재지*외모긴장	.0045	.0170	.27
학교소재지*분노감정	-.0028	.0145	-.20
-2 Log Likelihood	7,912.0		
사례수	2,693		

주: **는 $P<.01$, *는 $P<.05$ 을 의미함.

그렇지만 표 5의 결과는 가설2를 완전히 지지하지 못한다. 가설2와 달리 학교유형과 부모긴장, 학교유형과 외모긴장, 학교유형과 분노감정, 학교소재지와 목표실패, 학교소재지와 부모긴장, 학교소재지와 친구긴장, 학교소재지와 외모긴장, 학교소재지와 분노감정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미시환경이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GST의 명제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혹은 본 논문에서 학교 미시환경 이외의 다른 미시환경이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소년생활의 대부분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미시환경만을 고려했고 가정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다른 미시환경들을 반영하지 못했다. 학교 미시환경이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목표실패, 친구긴장, 학교긴장과 같이 학교와 관련된 변수들에서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시환경의 영향이 차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GST에서 다루는 모든 인과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미시환경은 그 환경과 관련해 겪게 되는 객관적 긴장에 영향을 미치며 공유되는 하위문화 목표, 긴장감수성, 인지재구성 가능성에 의해 구성원들의 주관적 긴장, 정서적 반응, 개인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아직까지 GST에서 중요한 미시환경의 유형과

15) 생활긴장과 비행과의 관계에서 미시환경별로 그 영향이 차별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익명의 검토자가 지정한 사항이다. GST이론을 중심으로 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 검토자의 지적은 매우 소중한 의견이 될 것이다.

미시환경별로 비행유발과 밀접한 하위문화 목표, 긴장감수성, 인지재구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다. 앞으로 학교 미시환경 이외의 다른 중요한 미시환경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함께 이에 관한 이론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유형의 긴장을 경험한다. 슬픈 일, 억울한 일, 불쾌한 일 등 자신들이 원치 않는 생활긴장들을 겪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생활긴장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소년들은 생활긴장을 접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행동한다(Rubington & Weinberg, 1987: 4). 따라서 생활긴장과 소년비행과의 관계를 검토하려면 외부자극으로서의 생활긴장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과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애그뉴는 생활긴장의 영향을 다양하고 다층적 인과관계로 논의한 일반긴장이론을 발표했다(Agnew, 2001; 2009). 본 논문에서는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을 기초로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생활긴장과 소년비행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활긴장이 소년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년일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었다. 외모문제로 시련이 많을수록 역시 비행을 많이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분노심을 갖는 소년일수록 비행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의 환경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인문계 학교에서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좌절감과 친구간의 불화로 인해 비행에 빠져드는 현상이 악화되었고, 실업계 학교나 중소도시 이하의 학교에서는 학교문제로 비행에 빠져드는 현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는 학교생활의 어려움, 외모로 인한 시련, 생활과정의 분노가 소년비행을 유발하며 학교환경은 대하진학을 목표로 학생간의 경쟁을 방관하고 대안목표를 제시하는데 소홀함으로써 소년비행문제가 악화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소년비행대책에서 생활긴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행예방당국은 생활긴장의 계기로 작용하는 외부자극을 줄이고, 불공정하

고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에 개입하여 소년들이 억울함과 분노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긴장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인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교기관들은 다양한 삶의 목표들을 제시하여 단일목표 추구로 인한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생활 긴장에 관한 추후연구들도 필요하다. 분석결과의 일부는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과 일치하지 않았다. 보다 발전된 이론적 연구와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한 객관적 긴장과 주관적 긴장이나 정서적 반응과의 관계, 개인역량의 완충효과, 미시환경의 구체적 속성규명 등에 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준호 등. 2006.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 김준호 · 이동원.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 등. 2010.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 전민정 · 강상진. 2005. "다층자료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다층모형의 모수추정 비교: 2-level HLM, 3-level HLM, CMM 방법의 비교." 교육평가연구 18: Pp.123-147
- Agnew, R. 1992. "Foundations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Pp.47-87
- Agnew, R. 1997. "Stability and change in crime over the life course: A strain theory explanation." In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T.P. Thornberry(ed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Pp.101-132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 Pp.319-361
- Agnew, R. 2006. "General Strain Theory: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In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 Advance in Criminological Theory. Francis T. Cullen, J.P. Wright, and K. Blevins(ed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p. 101-123
- Agnew, R. 2009. "General Strain Theory." In Handbook on Crime and Deviance. Marvin Krohn, A. Lizotte, and G.P. Hall(eds.). New York: Springer
- Agnew, R. & T. Brezina. 1997. "Relational problems with peers, gender and delinquency." Youth & Society 29: Pp.84-111
- Akers, R.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CA: Wadsworth
- Baron, S.W. 2004. "General strain, street youth and crime: A test of Agnew's revised theory." Criminology 42: Pp.457-483
- Bernard, T.J., J.B. Snipes, A.L. Gerould. 2010. Vold's Theoretical Criminology.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idy, L. 2001.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9: Pp.9-35
- Bryk, A.S. & S.W. Raudenbush. 199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CA: Sage Publications, Inc
- Cohen, L.E. &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Pp.588-608
- Elliott, D.S., D. Huizinga, & S. Ageton.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Sage
- Jensen, G. 1995. "Salvaging structure through strain: A theoretical and empirical critique." In *The Legacy of Anomie Theory: Advance in Criminological Theory*. Adler, F. & W.S. Laufer(ed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Gottfredson, M.R. &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ng, S.J. & B.R. Johnson. 2003. "Strain, negative emotions, and deviant coping among African Americans: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 Pp.79-105
- Liska, A.E. & M.D. Reed. 1985. "Ties to conventional institutions and delinquency: Estimat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Pp.547-560
- Littell R.C. et al. 2006. *SAS for Mixed Models*. Cary, NC: SAS Institute Inc.
- Merton, R.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Pp.672-682
- Moon, B. et al. 2007. "General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key strain characteristics on delinquency." *Crime & Delinquency* 54: Pp.582-613

- Moon, B. & M. Morash. 2004. "Adaptation of theory for alternative cultural contexts: Agnes's general strain theory in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28: Pp.77-104
- Moon, B., M.M. Morash, C.P. McCluskey, and H. Won. 2009. "A comprehensive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Key strains, situational- and trait-based negative emotions, conditioning factors,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 Pp. 182-212
- Muller, P.A. et al. 2001. "Science achievement growth trajectories: Understanding factors related to gender and racial-ethnic differences in precollege science achieve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 Pp.981-1012
- Piquero, T.C. & M.D. Sealock. 2000. "Generalizing general strain theory: An examination of an offending population." *Justice Quarterly* 17: Pp.449-484
- Rubington E. & M.S. Weinberg. 1987. *Deviance: The Interactionist Perspectiv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Schonfeld I.S. & D. Rindskopf. 2007.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in organizational research: Longitudinal data outside the context of growth modeling."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0: Pp.417-429
- Singer, J.D. 1998. "Using SAS PROC MIXED to fit multilevel models, hierarchical models, and individual growth model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24: Pp.323-355

A Study on the Effects of Strains on Juvenile Delinquency

- Focusing on the HLM Analysis of School Environment

Lee, Soon-Rae*

Lee, Kyeong-Sang**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trains experienced by youths on juvenile delinquency. Two hypotheses are derived from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The first hypothesis expects th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strains and delinquency. The second hypothesis expects the relationships to vary depending upon school environment. Six types of strains, which are goal failure, parental conflict, peer conflict, school conflict, poor appearance, and anger, are measured by questionnaire items collected in 2005. Delinquency is measured by 14 items for both status offenses and delinquent behavior. School environment is measured by 2 proximate indicators representing school-location and school-type. Data consist of responses given by 2,756 youths.

Correlation analysis shows moderate to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all 6 strain variables and delinquency. The range of Pearson' r is from the .08 of peer conflict to the .34 of school conflict.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for in regression analysis, school conflict is shown to be the strongest predictor among 4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such as parental conflict, school conflict, poor appearance, and anger. The first hypothesis is partially proven because other strain variables are not matched to the Agnew's expectation.

Result from 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show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nces in both level 1 and level 2 residuals. Four cross-level effects

* Professor, College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Ph.D. in Criminology

** Senior Researche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h.D. in Liberal Arts

are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further HLM analysis. They are school-type with goal failure, school-type with parental conflict, school-type with school conflict, and school-location with poor appearance. The result indic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ain variables and delinquency to vary depending upon school environment. The second hypothesis is partially proven, too. The nonsignificant effects of other strain variables are not matched to the Angew's expect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that juvenile justice system should develop measures to deal with strains experienced by youths. The most urgent priority is to control the external stimulus causing unnecessary strains on youths. Also, school administrators are recommended to change their emphasis from the unitary subcultural goal of good grade to many alternative subcultural goals. Further studies are also recommen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objective strain and subjective strain or emotional reaction, detailed features of macro environment leading to delinquency, and buffering effects of individual constraints to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coping.

❖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Strain, General Strain Theory, Micro environment, Strains more likely to lead to delinquency